

18.05.14(월)~18.05.18(금)

1. 전주 주가 추이

	현재가	Mkt. Cap.	PBR (2018F)	PER (2018F)	ROE (2018F)	Performance					Weekly Net Buy			공매도 거래대금	
						1 W	1 M	3M	6M	YTD	Institution	Foreigners	Pension	1W	1M
KOSPI	2,461	1,526,892	1.1	10.0	11.5	-0.7	-0.8	1.6	-2.9	-0.3	479	-629	240	2,277	10,739
KOSDAQ	869	165,268	2.7	18.7	14.7	0.4	-2.7	2.5	12.1	8.9	76	26	17	529	2,903
보험	19,093	22,809	0.7	14.6	5.2	-1.8	-0.4	-7.6	-13.6	-9.7	5	-47	9	27	122
증권	2,191	22,790	0.9	10.5	9.3	-1.3	5.1	0.7	5.0	10.3	37	-18	8	32	163
삼성생명	112,000	22,400	0.7	14.5	4.7	-2.2	-0.9	-7.4	-17.0	-10.0	-10	-5	-0	9	30
한화생명	5,870	5,098	0.6	8.6	6.4	-3.5	-4.7	-10.0	-24.4	-15.1	-5	-6	0	2	6
ING생명	41,050	3,366	0.9	9.4	9.7	-3.6	8.0	-19.0	-21.5	-23.1	2	-2	1	2	12
동양생명	7,550	1,218	0.5	8.1	6.1	-1.9	-13.9	1.3	-10.2	-0.7	-6	5	-1	0	3
삼성화재	266,500	12,625	1.0	12.6	8.3	-1.1	0.4	-2.9	-2.0	-0.2	4	-10	2	3	36
DB손해보험	60,600	4,290	0.8	6.0	13.7	-1.3	-0.5	-10.2	-11.0	-14.9	4	-5	2	4	13
현대해상	37,000	3,308	0.8	5.8	15.4	-2.6	1.6	-10.7	-16.2	-21.3	1	-4	0	4	15
메리츠화재	20,000	2,207	1.1	6.4	18.2	-3.4	-3.4	-16.1	-20.2	-14.9	3	-5	1	1	2
한화손해보험	7,130	832	0.6	5.0	13.3	0.1	-5.6	-12.7	-13.8	-12.4	-1	1	-0	0	0
삼성증권	37,500	3,349	0.7	9.6	7.8	0.9	2.5	-7.9	-1.3	2.5	19	9	4	5	17
미래에셋대우	9,810	6,537	1.0	12.2	8.1	-2.4	4.9	1.4	-6.6	6.7	8	-3	3	10	61
NH투자증권	16,200	4,559	1.0	11.2	8.8	-1.8	9.8	10.6	12.5	16.5	4	8	-2	3	29
한국금융지주	94,800	5,283	1.3	10.2	13.7	0.5	11.8	18.6	38.4	37.4	-10	8	-1	4	22
키움증권	125,500	2,774	1.5	10.8	16.1	2.0	10.6	17.8	48.9	43.3	7	-12	-0	8	34

자료: 개별 보험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지수 및 증권사 추정치는 Inquire 컨센서스 기준

2. 전주 동향

보험	<p>보험업종 약세 시현: 전주 보험업종은 약세를 시현하였음. 금리는 상승하고 있지만 부진하였던 1분기 실적발표의 영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손해보험업종의 경우 시책 경쟁에 따른 판매비 부담 지속 가능성, 생명보험업종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상적인 손익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 등이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투자시기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p> <p>▶ 보험사 듀레이션매칭 채권 도입 추진: 금융당국이 RBC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듀레이션매칭채권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보험사들은 IFRS17을 앞두고 듀레이션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나,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에 대한 부담이 커져 당국에 개선을 요청한 상황. 이에 대한 대안으로 채권매입 때 자본적정성 확보 목적으로 만기보유 약속하면 회계상 분류와 상관없이 RBC에는 채권평가손익에 따른 자본 변동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임. 다만 당국 입장에서는 기존 회계원칙을 벗어나 감독법규상 예외규정을 두는 것으로 도입에 대한 부담 존재</p> <p>▶ 동양생명,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 추진: 동양생명은 오는 7월 말 3~5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임. Fitch로부터 국제 신용등급 BBB+를 확보하였음</p>
증권	<p>증권업종 약세 시현: 거래대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신용잔고도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증권업종은 약세를 시현하였음. 1분기 실적이 매우 좋았고 지금의 거래대금과 지수 흐름을 감안하면 2분기 실적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기대수준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모멘텀 증가보다는 모멘텀이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우려도 점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p> <p>▶ 신용거래 금중에 증권사 신용한도 소진: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신용거래량과 잔고도 12.4조원을 기록하였음. 이에 증권사들은 한도 소진에 다다르고 있음. 오는 9월 28일부터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 전담, 일반 신용공여를 모두 포함한 총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 이내이던 것이 200%로 확대됨. 다만 추가된 100%는 기업신용공여에 할당해야 하는 등 제한 사항 있음. 한편 키움증권은 이달 9일 사업보고서 제출로 3,500억 규모 RCPS가 자기자본으로 인식되어 신용공여 한도가 확대되었음</p> <p>▶ 윤석현 금감원장, 'NH투자증권 인가심사 원활': 윤석현 금감원장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초대형 IB 육성에 찬성한다며, NH투자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음</p>

3. 주간지표 업데이트

	전주	전년대비	Monthly					MoM	Quarterly					QoQ
			17.12	18.01	18.02	18.03	18.04		2Q17	3Q17	4Q17	1Q18	2Q18	
							18.05 누계						18.05 누계	
일평균거래대금	조원	17년대비,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14.2	57.7	12.1	15.8	13.0	12.4	14.8	3.2	8.9	8.2	11.8	13.8	14.5	4.7
KOSPI	8.7	62.4	5.5	7.1	6.9	6.9	9.1	16.2	5.6	5.2	6.0	7.0	8.3	18.5
KOSDAQ	5.6	50.8	6.6	8.7	6.2	5.5	5.7	-12.4	3.2	3.0	5.8	6.8	6.2	-9.5
신용잔고	조원	YTD,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12.5	26.6	9.9	11.3	11.2	11.3	12.5	2.2	8.5	8.3	9.9	11.3	12.5	10.1
KOSPI	6.2	38.8	4.5	4.8	5.3	5.4	6.2	4.1	4.2	4.0	4.5	5.4	6.2	15.0
KOSDAQ	6.3	16.5	5.4	6.5	5.9	5.9	6.3	0.3	4.4	4.3	5.4	5.9	6.3	5.7
국고채금리[기말]	%	YTD, bp					%	bp					%	bp
1년	1.85	2.8	1.85	1.84	1.84	1.89	1.85	0.3	1.47	1.53	1.85	1.89	1.85	-4.1
3년	2.22	10.5	2.13	2.27	2.27	2.22	2.22	0.3	1.70	1.89	2.13	2.22	2.22	0.3
5년	2.50	16.7	2.35	2.57	2.52	2.43	2.49	1.2	1.90	2.08	2.35	2.43	2.50	7.7
10년	2.75	25.8	2.47	2.77	2.74	2.62	2.72	3.3	2.21	2.37	2.47	2.62	2.75	12.8
약정 MS	%	17년대비, %p					%	%p					%	%p
삼성증권	6.3	0.3	5.8	6.5	5.8	6.2	6.4	-0.2	5.9	6.2	6.0	6.2	6.3	0.1
미래에셋대우	13.1	0.6	13.2	13.6	13.2	13.1	13.2	-0.2	12.5	12.7	13.2	13.3	13.2	-0.2
NH투자증권	6.5	0.5	6.6	6.4	6.1	6.3	6.4	0.0	5.9	5.7	6.4	6.3	6.4	0.1
한국금융지주	5.3	-0.5	5.6	5.9	5.5	5.5	5.5	-0.2	5.7	6.1	5.8	5.7	5.4	-0.3
키움증권	19.0	2.5	18.1	17.7	17.5	17.1	18.5	-0.1	16.0	15.3	17.4	17.5	18.4	1.0

자료: KOFIA, Check, KRX

4. 금주 전망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주에도 보험업종은 하방경직성을 테스트 할 것으로 전망됨 유가가 80불을 돌파하며 2~3분기 물가 부담이 확대될 것을 감안할 때 미국 금리의 상승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관련 모멘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다만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 반등을 억제하겠지만 신계약 관련 시책이 1분기대비 축소되고 있고 1분기대비 2분기의 실적 부담은 상당부분 완화될 것이며 3분기 큰 폭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증할 것으로 전망 Valuation 매력은 존재하는 점(P/B, P/E 밴드 하단), 1분기가 실적모멘텀 측면에서 최악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작은 모멘텀만으로도 저점에 서 일정 수준의 주가 회복은 쉽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정부에서 고려 중인 듀레이션매칭 채권의 도입이 결정되면 금리 상승시 RBC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2위권 손해보험사의 Risk 가 축소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금리 상승의 효과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업종 관련 Comment는 커버리지 개시후 시작할 예정임

5. 금주 일정

일자	국가	내용	전기치	예상치
5월 23일	미국	5월 마켓 제조업 PMI	56.2	
5월 24일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5월 24일	한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6. 전주 뉴스/자료 Review

뉴스	5/14 (월)	<p>▶ 한화손보, 삼성화재 이어 16일부터 후보험료 0.4% 내린다 (서울파이낸스) 오는 16일부터 자동차 상해특약 보험료 10% 인하할 계획. 기본보험료가 아닌 특약을 조정하는 것으로 전체보험료는 개인용 0.4%, 업무용 0.3% 인하되는 효과</p> <p>▶ "빛 내서 주식 사자"…대출 한도 바뀐 증권사 '진담' (머니투데이) 거래 활성화로 거래량 급증한다 바이오주, 남북경협주 급등으로 신용거래 확대. 삼성, KB 등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한도 바뀐다 용자한도를 줄이거나 신규 가입 제한 하고 있음. 오는 9월부터 3조원 이상 증권사에는 신용공여 한도 100%에서 200%로 확대되어 여력에 승용 투입 것</p> <p>▶ 유병력자 실손보험, 내달부터 삼성·NH생명도 판매 대열 합류 내달부터 삼성생명도 유병력자 실손보험 판매 가세.</p>
	5/15 (화)	<p>▶ 매각 앞둔 동양생명도 해외 영구채 발행 (한국경제) 동양생명, 내달 말 해외 신증자본증권 발행 추진. 3억~5억달러 규모 계획</p>
	5/16 (수)	<p>▶ 금감원, 보험사 '제대토로 사업비' 부가에 잇따라 제동 (서울파이낸스) 지난달 계약관리비·손해조사비 현황 파악. 하반기 전(초) 보험사 대상 집중 감리 예정</p> <p>▶ KDB생명, 2억달러 해외영구채 발행 '성공' (마켓인사이트) 수요예측에 기관 43곳이 4억달러 매수주문. 연 7.5% 금리 제시</p>
	5/17 (목)	<p>▶ 보험사 듀레이션매칭채권 도입 추진 (비즈와치) 금융당국, RBC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듀레이션매칭채권(가칭)' 도입을 검토중. 채권 매입때 자본적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만기보유를 약속하면 회계상 분류와 상관없이 RBC에는 채권평가손익에 따른 자본변동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 다만 당국 입장에서는 회계원칙에서 벗어난 감독법규상 예외규정을 두는 것으로 도입에 대한 부담 존재</p> <p>▶ 동양생명, 투자적격 외화 영구채 발행 청신호(더벨) 동양생명이 외화 신증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 피치 국제 신용등급 BBB+를 확보하면서 투자 적격 등급으로 신증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p> <p>▶ 미래에셋대우, 46층 뉴 스테이 짓는다 (한국경제) 미래에셋대우, 광주에 3,096가구 뉴스테이 건립할 예정. 미래대우는 조합원 분양 제외 전량 인수할 계획으로, 현 제안가 기준 총 인수대금은 6,300억원. 이 중 70%는 미래에셋대우가 자기자본으로 출자할 계획.</p> <p>▶ 미래에셋대우, IPO 조직 카운다 (더벨) ECM 산하 3팀 체제 추진…'해외 딜 소싱+지분 투자 확대' 포석</p>
발간자료	5/18 (금)	<p>▶ 메리츠화재, 유병자실손보험 인수심사 완화 (뉴스핌) 메리츠화재, 유병자실손 인수심사 완화: 백내장·비염·치질·하직점맥류 등의 수술을 받았거나 최근 10일 이내에 경증 질환으로 입·통원 등 36개 질병에 노출됐어도 가입 가능할 수 있게 한 것. 다만 36개 질병 중 노출된 질병이 3개를 초과하면 특별심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음.</p> <p>▶ 교통법규위반 시 후보험료 할증 축소된다 (대한금융신문) 상위 손보사 '이중 할증' 수정작업 진행 중. 법규준수자 무사고할인을 소폭 줄어들 전망</p>
		<p>▶ 한화손보 1Q18 실적발표: https://goo.gl/7W52CF - 1분기 순이익 294억원(-21.3%, YoY) 우리 전망치 및 컨센서스를 약 19.9% 하회 - 인담보 신계약의 증가 및 경쟁 심화에 따른 사업비 부담 때문. 사업비 제외시 양호한 수준. 인담보 신계약 성장 측면에서도 경쟁심화를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함 - 투자의견은 Buy 유지. 1) 장기보험 및 위험손해를 개선 흐름이 견조하고 2) 자동차부분의 M/S 확대를 통해 손해를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p> <p>▶ 현대해상 1Q18 실적발표: https://goo.gl/WMn7op - 1분기 순이익 1,060억원(-8.2%, YoY) 컨센서스 부합 - 신계약 경쟁으로 인한 사업비 부담 있었으나 장기위험손해를 개선세 견조. 자동차 손해율 및 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을 시현. 2분기에는 실적 모멘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투자의견을 Buy 유지. 1) 장기 위험손해율의 개선 흐름이 견조하고 2) Valuation 측면에서 매력에 충분하기 때문임</p> <p>▶ DB손해보험 1Q18 실적발표: https://goo.gl/yCK9Jx - 1분기 순이익 1,102억원(-30.8%, YoY) 우리 전망치 및 컨센서스 하회. - 장기 위험손해를 및 자동차손해율이 예상보다 부진하였기 때문임. 2분기에는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 - 투자의견은 Buy 유지. 1) 하반기에 장기보험 갱신계약 증가로 장기 위험손해를 개선 확대 예상, 2) 경쟁사 사업비 상승이 잘 통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p> <p>▶ 삼성생명 1Q18 실적발표: https://goo.gl/keUc5u - 1분기 순이익 3,899억원(-31.1%, YoY) 컨센서스 대비 -13.2% - 순이익이 감소한 이유: 1) 투자부문 기고효과(높은 계열사 배당 및 부동산 매각이익), 2) 변액보존금의 축소, 3) 사업비 부문에서 신계약비 이연규모 감소, 4) 손해를 악화 - 투자의견을 Buy 유지. 높은 손해율이 비경상적 요인에 기인했다는 점, 사업비 증가분이 실제 신계약비 증가로 인한 문제가 아닌 이연되는 신계약비 규모의 축소로 인한 현상이라는 점,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매각 이슈가 남아 있어 잔여 추가 상승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였음</p> <p>▶ 삼성화재 1Q18 실적발표: https://goo.gl/cTsA7T - 1분기 순이익 3,011억원(-40.1%, YoY) 작년 1분기에는 분사매각이익 반영, - 1분기 실적은 신계약 성장 전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망치를 상회. 장기보험 손해를 및 투자수익률이 우리 예상치를 상회하였기 때문 - 투자의견 Buy 유지. 1)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 주도권 유지하여 자동차보험 합산비용을 관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 2) 배당성장 상황, 성장전락 추진 등의 전략 변화 긍정적으로 평가</p> <p>▶ 메리츠화재 1Q18 실적발표: https://goo.gl/19wExU - 1분기 순이익 631억원(-28.9%, YoY) - 컨센서스 및 우리 전망치 대비 9% 하회하는 수준. 신계약 고성장에 따른 사업비 부담 때문임. 사업비를 상승 부담이 크게 확대되어 투자부문에서 충분히 상쇄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투자의견 Buy 유지. 1) 2016년 이후 신계약 고성장의 결과가 2019년에는 일정부분 확인 가능할 것이고 2) 비용이 수반되고 있지만 대형사와의 경쟁을 통해 신계약 성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p> <p>▶ 아이엔지생명 1Q18 실적발표: https://goo.gl/AnQmk3 - 1분기 순이익 889억원(7.1%, YoY) 우리 전망치 및 컨센서스에 부합 - 대형사들의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건강 관련 상품에서 손해보험사들의 시장 침투가 높아진 상황에서 동사의 보장성 신계약 성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투자의견을 Hold로 하향. 목표주가와의 괴리도 축소 때문.</p> <p>▶ 한화생명 1Q18 실적발표: https://goo.gl/uvwT5bX - 1분기 순이익 1,146억원(-36.6%, YoY)으로 우리 전망치에 부합, 컨센서스 하회 - 목표주가 7,500원으로 6.3% 하향. 지난해 대비 처분이익 및 변액보존금환입 효과 축소 예상, 전년 기저로 보장성 신계약 APE의 낮은 성장을 반영하여 2018년 신계약까지 전망치 하향조정 -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 절대적으로 낮은 Valuation 때문. 신증증권 발행을 통해 RBC 비율이 약 20%p 상승하며 자본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였다고 판단</p>

7. Global Peers

		현재가 (Local)	Mkt. Cap. (USD bn)	PBR (FY18F)	PER (FY18F)	ROE (FY18F)	ROA (FY18F)	Performance (%)				
								1 W	1 M	3M	6M	YTD
한국	KOSPI	2,461		1.1	10.0	11.5	3.2	-0.7	-0.8	1.6	-2.9	-0.3
	보험	19,093		0.7	14.6	5.2	0.5	-1.8	-0.4	-7.6	-13.6	-9.7
	삼성생명	112,000	20.7	0.7	14.5	4.7	0.5	-2.2	-0.9	-7.4	-17.0	-10.0
	한화생명	5,870	4.7	0.6	8.6	6.4	0.4	-3.5	-4.7	-10.0	-24.4	-15.1
	ING생명	41,050	3.1	0.9	9.4	9.7	1.1	-3.6	8.0	-19.0	-21.5	-23.1
	동양생명	7,550	1.1	0.5	8.1	6.1	0.5	-1.9	-13.9	1.3	-10.2	-0.7
	삼성화재	266,500	11.7	1.0	12.6	8.3	1.3	-1.1	0.4	-2.9	-2.0	-0.2
	DB손해보험	60,600	4.0	0.8	6.0	13.7	1.3	-1.3	-0.5	-10.2	-11.0	-14.9
	현대해상	37,000	3.1	0.8	5.8	15.4	1.2	-2.6	1.6	-10.7	-16.2	-21.3
	메리츠화재	20,000	2.0	1.1	6.4	18.2	1.8	-3.4	-3.4	-16.1	-20.2	-14.9
	한화손해보험	7,130	0.8	0.6	5.0	13.3	1.1	0.1	-5.6	-12.7	-13.8	-12.4
	증권	2,191		0.9	10.5	9.3	1.0	-1.3	5.1	0.7	5.0	10.3
	삼성증권	37,500	3.1	0.7	9.6	7.8	0.9	0.9	2.5	-7.9	-1.3	2.5
	미래에셋대우	9,810	6.0	1.0	12.2	8.1	0.7	-2.4	4.9	1.4	-6.6	6.7
	NH투자증권	16,200	4.2	1.0	11.2	8.8	1.0	-1.8	9.8	10.6	12.5	16.5
	한국금융지주	94,800	4.9	1.3	10.2	13.7	0.0	0.5	11.8	18.6	38.4	37.4
일본	Nikkei225	22,930		1.7	16.6	10.2	1.9	0.8	3.5	4.4	2.3	0.7
	보험	1,108		0.9	11.9	7.0	0.6	4.9	10.5	11.7	12.2	4.6
	Dai-ichi Life Holdings	4,050	26.0	2.3	47.2	4.7	2.6	3.4	8.8	4.5	51.3	37.9
	Japan Post Insurance	2,589	14.0	0.8	17.0	4.6	0.1	-0.7	2.1	-7.8	11.4	-2.3
	Tokio Marine Holdings	5,490	37.1	1.0	15.0	7.3	1.1	3.4	11.8	7.5	12.6	6.8
	증권	433		0.9	10.5	8.3	0.6	1.6	0.6	-0.5	6.1	-0.3
	Nomura Holdings	612	20.1	0.7	8.5	9.0	0.6	0.9	-3.9	-8.2	-4.5	-8.1
	Daiwa Securities	669	10.3	0.9	10.3	8.6	0.6	1.2	0.6	-7.8	-4.1	-5.3
	SBI Holdings	3,145	6.4	1.6	13.7	11.9	1.2	7.7	17.5	23.1	91.1	33.5
	Hang Seng	31,048		1.3	12.0	12.7	1.1	-0.2	2.1	-1.2	4.1	3.8
중국/홍콩	상해A주 지수	3,345		1.5	12.6	12.1	1.1	1.0	4.0	-0.2	-6.4	-3.4
	보험	162		1.3	11.5	11.0	1.8	-1.1	2.7	-10.7	-15.5	-10.2
	China Life	22	104.1	1.4	12.3	12.1	1.5	-0.7	2.3	-3.2	-16.6	-8.8
	Ping An Insurance	78	181.4	2.1	11.8	19.2	1.6	0.5	-4.2	-9.8	-0.7	-3.7
	AIA	72	110.8	2.4	19.2	13.1	2.7	-1.1	4.8	13.7	9.3	8.0
	증권	117		1.3	17.1	8.0	51.8	-1.1	1.7	-1.8	-15.6	-7.3
	CITIC Securities	20	36.2	1.2	15.4	8.7	2.1	4.2	4.8	7.9	17.6	22.7
	Haitong Securities	11	19.1	0.8	10.6	7.6	1.8	0.0	-1.7	-5.4	-9.3	-6.7
	Huatai Securities	16	19.0	1.0	11.9	8.8	2.0	-0.8	0.4	-1.0	-3.3	0.4
	S&P500	2,713		3.1	17.1	17.9	3.5	-0.5	1.6	0.4	4.4	1.5
	보험	387		1.3	11.9	10.8	#N/A	0.1	-2.3	-2.6	-3.2	-3.8
	AIG	55	49.5	0.8	11.2	7.0	0.9	4.4	-0.1	-7.3	-8.2	-7.4
미국	Metlife	48	48.6	0.9	9.4	10.3	0.7	2.2	0.7	2.4	-7.5	-5.5
	Prudential Financial	102	43.0	0.9	8.4	11.3	0.6	2.6	-4.3	-6.4	-7.1	-10.9
	증권	211		2.2	15.4	12.7	1.3	-0.6	0.8	-0.0	9.6	4.0
	JP Morgan	111	378.4	1.6	12.4	13.2	1.2	-2.4	-0.5	-3.1	13.2	3.9
	Goldman Sachs	237	93.0	1.2	10.3	12.0	1.0	-2.4	-6.8	-11.4	-0.4	-7.0
	Charles Schwab	59	79.8	4.3	24.3	19.1	1.3	-0.5	10.2	13.4	32.4	15.1
	MSCI Europe	133		1.8	14.9	9.8	1.0	0.7	3.5	3.7	1.7	1.4
	보험	79		1.2	11.3	11.7	0.5	0.4	0.3	0.7	1.8	2.6
유럽	Allianz	192	99.3	1.2	11.1	11.4	0.8	-0.0	-0.6	0.6	-2.8	0.0
	AXA	23	65.7	0.8	8.8	8.6	0.5	2.2	-2.0	-9.2	-8.5	-7.0
	Prudential plc	1,934	67.6	2.8	13.2	20.4	0.6	0.3	4.3	5.9	2.4	1.5
	Munich Re	194	34.2	1.0	11.7	9.0	1.0	0.7	-0.5	6.0	1.6	7.2
	증권	76		1.2	15.1	6.7	0.6	-2.2	0.2	-4.6	-1.6	-4.2
	UBS	16	61.6	1.1	11.4	9.5	1.0	-2.3	-5.8	-13.5	-3.1	-9.6
	Credit Suisse	17	42.7	1.0	13.8	7.1	0.4	-2.9	4.9	-2.5	6.5	-2.8
	Deutsche Bank	11	26.3	0.4	20.7	1.4	0.3	-7.2	-7.5	-18.1	-33.4	-31.9

자료: 한국 보험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한국 지수 및 증권사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이외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8. 주요국 금리 동향

			금리 수준 (%)					변동폭 (bp)					
			현재	1W	1M	3M	6M	연초	1W	1M	3M	6M	YTD
한국	국고채	1 Year	1.848	1,901	1,848	1,835	1,822	1,853	-5.3	0.0	1.3	2.6	-0.5
		3 Year	2.220	2,282	2,190	2,263	2,172	2,134	-6.2	3.0	-4.3	4.8	8.6
		5 Year	2.502	2,560	2,427	2,517	2,381	2,347	-5.8	7.5	-1.5	12.1	15.5
		10 Year	2.750	2,785	2,642	2,752	2,570	2,467	-3.5	10.8	-0.2	18.0	28.3
일본	국고채	1 Year	-0.115	-0.130	-0.132	-0.158	-0.206	-0.145	1.5	1.7	4.3	9.1	3.0
		10 Year	0.061	0.047	0.038	0.059	0.036	0.048	1.4	2.3	0.2	2.5	1.3
중국	국고채	1 Year	3.025	2.902	3.016	3.422	3.633	3.834	12.3	0.9	-39.7	-60.8	-80.9
		10 Year	3.718	3.696	3.499	3.891	3.956	3.902	2.2	21.9	-17.3	-23.8	-18.4
미국	국고채	1 Year	2.289	2.248	2.151	1.971	1.579	1.732	4.1	13.8	31.8	71.0	55.8
		10 Year	3.056	2.970	2.873	2.875	2.344	2.405	8.6	18.3	18.1	71.2	65.1
유럽	국고채	1 Year	-0.543	-0.557	-0.554	-0.562	-0.637	-0.611	1.4	1.1	1.9	9.4	6.8
		10 Year	0.579	0.559	0.531	0.706	0.361	0.427	2.0	4.8	-12.7	21.8	15.2

자료: Bloomberg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승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종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